

#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윤 대통령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 원자력·에너지 분야 협력도 논의 北 핵심협 등 도발 시 단합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반도체 생산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 간에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한·네덜란드 회담을 마친 뒤 언론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양국 간 반도체 분야의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회담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네덜란드 ASML의 피터 베닝크 CEO 등 양국 기업인들과 차담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정치·안보, 경제, 문화, 지역·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포괄적인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우크라이나 전

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위기,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해 양국이 글로벌 자유 연대의 핵심 일원으로서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원전·에너지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네덜란드 신규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소경제 협력, 스마트 농업, 우주산업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핵 위협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군사 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사용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왕 초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네덜란드 국민 방문을 포함해 여러 국제회의의 계기에 루터 총리와 자주 뵙고 긴밀히 소통해나가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빈 살만 환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걸어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안철수 “용산과 100% 똑같이 하면 지지층 확장 못한다”

### “대통령에 쓴소리 마다 않겠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17일 집권 여당 역할과 관련해 “행정부와 국회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똑같은 지지층에 간섭하는 결국 총선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정당대회에서 대거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당 대표

와 ‘대통령과 친한 당 대표’ 중 어느 쪽 입장에 서 있느냐는 질문엔 “대통령에게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용산(대통령실의) 생각과 100% 똑같이 차이가 없다면 지지층 확장이 될 수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쓴소리라도 해야 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라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안 의원은 그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진사퇴 등을 주장해왔다. 이는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여론 핵심부와의 결이 다른 목소리다.

그는 “저는 (당에서) 솔직히 봐줄 사람이 없다. 공천에서 친한 사람을 봐주기보다는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어서 공천 파동이 없을 것”이라며 “당에 신세진 사람들이 많은 분이 당대표로 당선되면 현재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 국힘, 금투세 유예 촉구...“금융시장 혼란 불가피”

### 여의도연구원 긴급좌담회 촉구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강행을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정안에 대해 “개미의 목을 졸라 상장 폐지로 가는 법안”이라며 유예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허하라’는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좌담회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추가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자산 손실을 줄 수 있다”며 “민주당은 ‘부자갑세’라는 고약한 프레임에 씌워 중산층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큰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곳은 부동산과 채권, 주식(시장)이 대표적인데 주식시장을 빼고 나머지는 거의 붕괴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간신히 회복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충격을 준다면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전문가

가 많다”고 지적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투세를 당장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붕괴해 결국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분출했다.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강행 반대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는 정의정 한국투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 강행은 국민도 죽고 민주당도 망하는 기미카제 전략”이라며 “민약 강행되면 1400만 투자자와 연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대상) 1%밖에 안 되니 문제가 없는데, 기재부에 따르면 1%가 국내 주식 50%를 들고 있다고 한다”며 “큰 손이 빠져 나가면 95%가 손해 볼 구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통과·의결되면 12월 패닉장이 올 것은 불문가지”라며 “먼저 탈출한 사람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해서 너도나도 매도 버튼을 누른다면 재앙 수준의 대참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 참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주식시장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과는 비가 올 때 우산을 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지지율 한달 반만에 20%대로

### NBS 조사...55% 국정조사 찬성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한 달 반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였다.

2주마다 시행되는 NBS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

정운영 긍정평가는 지난 10월 1주 차에 29%로 떨어졌다가 10월 3주 차에 31%로 반등한 뒤 직전 조사인 11월 1주 차에 31%를 유지했다. 약 한 달 반만인 이번 조사에서 다시 20%대로 떨어진 것이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p) 오른 62%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두번째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주장하는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5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41%)보다 높았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희생자와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49%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45%)보다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전용기 공천에서 친한 사람을 봐주기보다는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어서 공천 파동이 없을 것”이라며 “당에 신세진 사람들이 많은 분이 당대표로 당선되면 현재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첨단우리병원**

봄에 떠나는 그라운 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후원</b> 삼도해운, 플래티늄	<b>승선문의</b> 061-834-3434	<b>예약센터</b>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	-----------------------------	---